

중도탈락률 증가세 2020년 자퇴 791명

강린희 기자 linhee0710@khu.ac.kr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중도탈락 학생 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 중도탈락 비율(사유별 중도탈락 학생/재적학생 × 100)은 2018년 기준 2.5%였지만 2019년 2.8%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시작한 2020년에는 3.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작년 기준 우리학교 중도탈락률은 서울권 상위 13개 대학 중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도탈락률은 재학 중 자퇴·미등록·미복학 등으로 중도에 대학을 그만둔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중도 탈락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퇴이다. 2018년 기준 499명이었던 자퇴 학생 수는 2019년에 622명으로, 2020년에는 791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208명이었던 미복학 학생의 경우 2019년에는 185명, 2020년에는 17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대학 입시 연구소인 커넥츠 진학 연구소 유성룡 소장은 이러한 중도탈락률의 원인이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문계열보다 이학계열 학생의 중도탈락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많은 이학계열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의학계열로의 진학을 시도하기 위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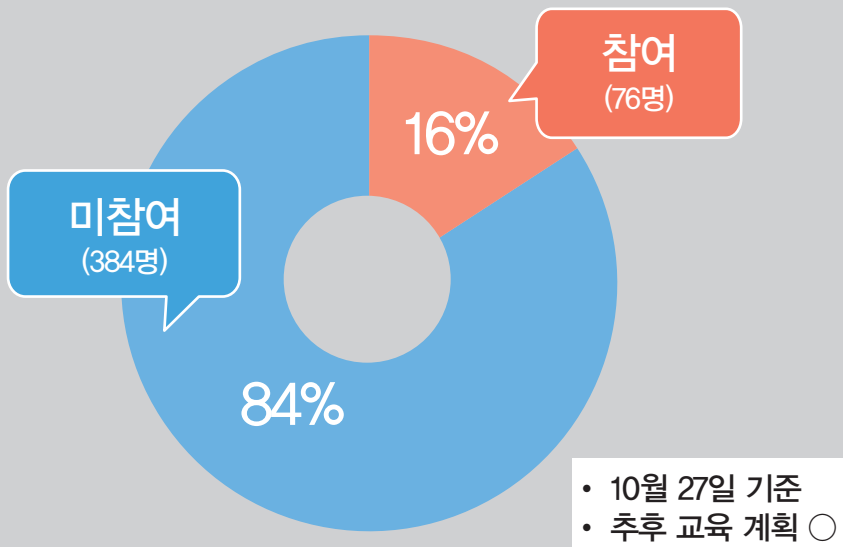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계열별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자연/의예가 4.4%, 공학이 4.3%, 예체능이 3%, 인문사회가 2.8%로 이학계열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21.4%를 기록한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공학과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 소장은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학부제로 모집하기 때문에 중도탈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소장이 밝힌 또 다른 원인은 정시 선발 인원 증가다. 그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의 복구가 어려운 수시 비율이 높았을 때는 만회할 기회가 없었지만, 수능 시험의 경우 한번 더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것과 정시를 준비해서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선호도와 취업 시장에서 대학을 서열화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중도탈락률의 원인의 종착점은 대학 외부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사지원팀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위드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대면 강의가 증가하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미복학, 성적 경고로 인해 제적된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국제캠 전임교원 2학기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폭력 예방교육 참여 여전히 기준치 미달

이봄 기자 lbom.kr@khu.ac.kr

올해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 전임교원의 폭력예방 통합교육 참여율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대학주보 167호 1면)

폭력예방교육은 1년 동안 전임교원과 부총장, 실·처장 등 고위직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다. 지난 1학기에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학기에는 전임교원과 그 외 고위직 교육을 따로 시행했다.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행된 전임교원 대상 실시간 폭력예방 통합교육에는 국제캠 전임교원 76명이 참석했다. 국제캠 전임교원은 총 460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중 오직 16%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이다. 지난 1학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폭력예방 통합교육에는 전임교원 103명이 참여해 참여율 약 22%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부진기관 선정 기준인 고위직 참여율 70%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올해 대학교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에는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학생 및 종사자참여율 전년 대비 증가율 각각 5%p 미만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5일 기준 폭력예방 교육에 참여한 국제캠의 전임교원 포함 고위직을 모두 합쳐도 1학기 153명, 2학기 13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제캠은 지난 9월 2020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 교육) 실적 점검 당시 고위직 참여율 46%로 기준치인 7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부진기관으로 선정돼 2년 이상 실적 부진기관으로 지적을 받았다.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이러한 현황에 대해 “아직 2021년 폭력예방교육이 전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추가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 능력!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Microsoft의 온라인 교육과정

Data Science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사이버보안 / 기초 개발자 과정

Microsoft Learning Platform

경희대학교 LINC+사업단

경희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mpp.khu.ac.kr